

# 한국·프랑스, 영광 해마 해상풍력사업 공동 개발

## 李대통령, 青서 마크롱과 정상회담

### 한수원, 佛전력공사와 MOU...지분 참여·관리 협력 핵심광물·원전·AI 협력도 강화...G7 정상회의 초청

중동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원자력과 해상풍력·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 안보 발표'를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인 오라노 간 협력 양해각서에는 핵연료 주기와 관련한 양사 간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인 프라마틀 간 협력 MOU에는 양사 간 핵연료 분야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력 사항을 규정할 '해상 풍력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는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해당 사업 지분 참여, 관리 등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수원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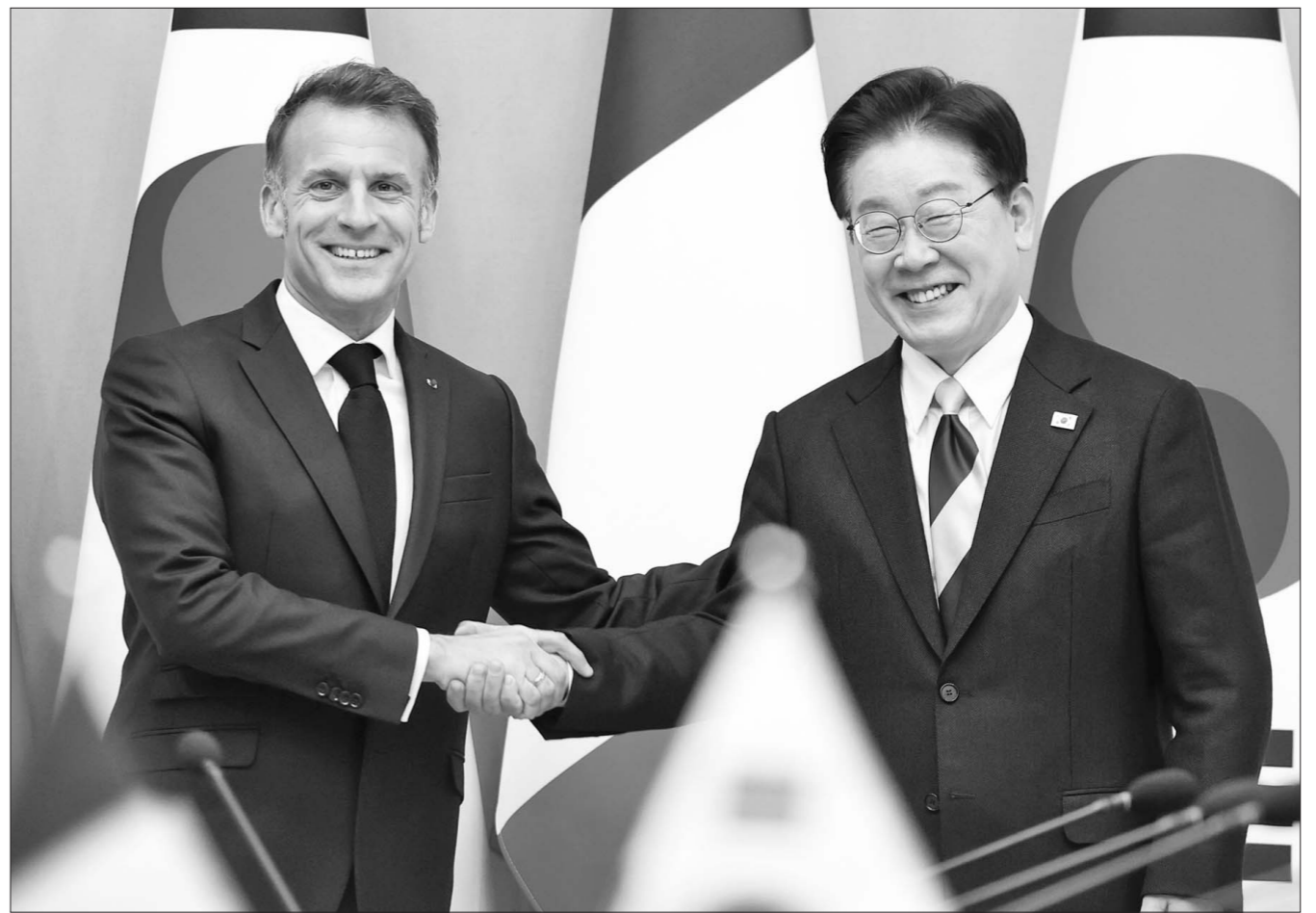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도 채택. 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인 해당 분야에서 정부 간 정책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기술 협력 협정도 문화 협력 범위를 신중 문화콘텐츠 분야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4건의 협정 및 MOU·협력 의향서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서명식이 진행됐다.

양국은 이와 별개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 2건, MOU·협력의향서 8건도 채택했다.

한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이 대통령은 "초청을 감사히 수락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백남

## “농업용 면세유·비닐·비료 수급 세심한 관리 필요”

### 김 총리, 장성 방문 농업용 기자재 수급 살펴 “전남광주 통합 ‘뉴호남’ 대한민국 선두주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전쟁 사태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리는 지난 4일 전남 장성 황룡농협 자재센터를 방문해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는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쟁점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 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 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기계용 면세유와 비료 지원 확

대 등 현장 간의 사항에 대해 "추경도 설정하고 지원책도 강구했는데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 논의하겠다"며 "면세유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찾아 '비상 전국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김 총리는 휴일인 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열린 '5·18 캠퍼스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과 메가특구 조성을 통해 '뉴호남'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18 사적지 1호인 전남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농민기를 맞아 전남 장성군 황룡농협 자재센터를 방문해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밀칭 필요 등 농업 기자재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다.

아말로 5·18과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며 "광주와 전남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마라톤의 선두주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광주가 통합되고 메가특구

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호남은 완전히 새롭게 전자기개방 부활할 것"이라며 "뉴호남에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 전남 11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돌입 현직 단체장 참여 없는 목표·순천 등 경쟁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6일 시작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1차로 6~7일 이틀간 진행되는 경선 대상 지역은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담양, 장흥, 강진, 완도, 진도, 영암, 무안 등 11개 시·군이다.

이들 11개 지역 후보 경선 개표는 8일 오전 10시 도당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어 10일 경선 결과 재심을 거쳐 11일 본선 및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도당은 나머지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후보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각각 2~7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이번 경선에선 관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안심번호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명이 참여하는 여수시장, 6명이 뛰어드는 무안군수·영광군수, 5명이 나온 완도군수 등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뒤 상위 득표자 3명이 참여하는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의 결선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순천시·구례군수·고흥군수 후보 경선에도 5명이 참여하지만,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을 진행하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3~4인 경선 지역에선 본경선을 통해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목포시장·나주시장·강진군수·진도군수·영암군수·함평군수 등 후보자는 2인 맞대결로 본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인 목포시장·순천시·담양군수·완도군수·진도군수 등 후보 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의 경선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치열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1면 '중동전쟁 여파'서 계속

현재 가로형 현수막은 규격과 품질에 따라 1장당 3만~7만원 수준이며, 대량 주문 시 단가가 낮아진다.

여기에 설치와 철거 인건비가 더해지면 실제 비용은 5만~10만원대에 이른다. 업체는 향후 원가 상승이 본격 반영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격을 올리면 주문 감소로 이어지고, 유지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기존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신규 물량부터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 특수에 대한 기대도 예전 같지 않다. 통상 선거철은 공보물과 현수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지만, 제작 단가 상승으로 후보자들이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작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보물이 8페이지 이상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페이지 축소 등 비용 절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는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계약 단가 조정 등 현실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원가 구조 개선과 공동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광주 찾은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 남동성당 미사 후 국회에 찬반 입장 촉구 “민주주의 반대 세력... 지선서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하며 개인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계승을 위한 헌법 전문 수록 개인안 발의에 여러 정당이 뜻을 모았음에도 국민의힘 공동 발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듯 5·18 정신으로 12·3 비상계엄 내린을 극복한 것"이라며 "이제 5·18 정신은 헌법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곧 전두환 찬양이자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힘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성찰 없는 내란 옹호 세력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6월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확히 했다.

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12·3비상계엄 내란 극복,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 이념에 걸맞게 5·18 정신 수록에 동참해 자신들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성당 방명록에 "5·18 광주영령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1면 '통합시장 경선'서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가리는 결선까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결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3파전으로 치러진 본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신정훈 후보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찍이 나오면서 결선

을 앞두고 탈락한 후보가 두 후보가 가운데 후보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올 정도였다.

또 다른 변수는 부동표 향방이다. 지역민의 경우 통합시장 경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지 않다.

경선이 시작된 지 한 달 가량 되면서 이재야 후보들에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결선을 앞두고 시행될 TV토론도 이런 부동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

로 보인다. 몇몇 방송사들은 마지막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토론회를 열기 위해 미리 후보들에게 결선에 나서게 되면 토론회에 참여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관계자는 "탈락 후보의 지지층의 표심 이동과 권역별 민심, 각 후보의 조직력이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경선이 막바지로 흐른 만큼 네거티브 수위도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시,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1530t 감량 추진 감량계획 수립...2억 들여 공동주택 RFID 100대 설치

광주시가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1530t 줄이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계획'을 실행한다.

이번 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수립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5개년(2025년~2029년) 종합계획'의 일부다.

5개년 종합계획은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1%(하루 4.2t, 연간 1530t) 감량을 목표로 마련했다.

올해 계획은 감량 기반 확대, 정책 평가 강화, 교육·홍보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광주시는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 설치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해 올해 1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RFID 종량기는 무선주파수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배출량을 세대별로 측정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계다. 감량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시민들은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RFID 156대를 보급, 누적 5628대를 설치했으며, RFID 설치율 73%에 도달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동주택 RFID 510대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RFID 기반 감량기 설치사업에는 예산 1억6000만원을 편성, 올해 16대를 설치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 다량배출사업장 159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감량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